



↑ 매장 외부의 좌석공간. 빨간색의 파라솔이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매장 외관. 이 매장은 학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 고객도 많은 편이다.

## 바로방 '구내 다과점' 오픈

### 학교내 휴식공간 제공 ... 외부손님도 많아



↑ 상가쪽의 좌석공간. 이곳은 우유와 계란 프라이, 빵을 접목시킨 모닝세트를 마련하고 있다.

↓ 매장 전경. 학생들은 강의가 비는 시간을 이용해 이곳에서 간단한 빵과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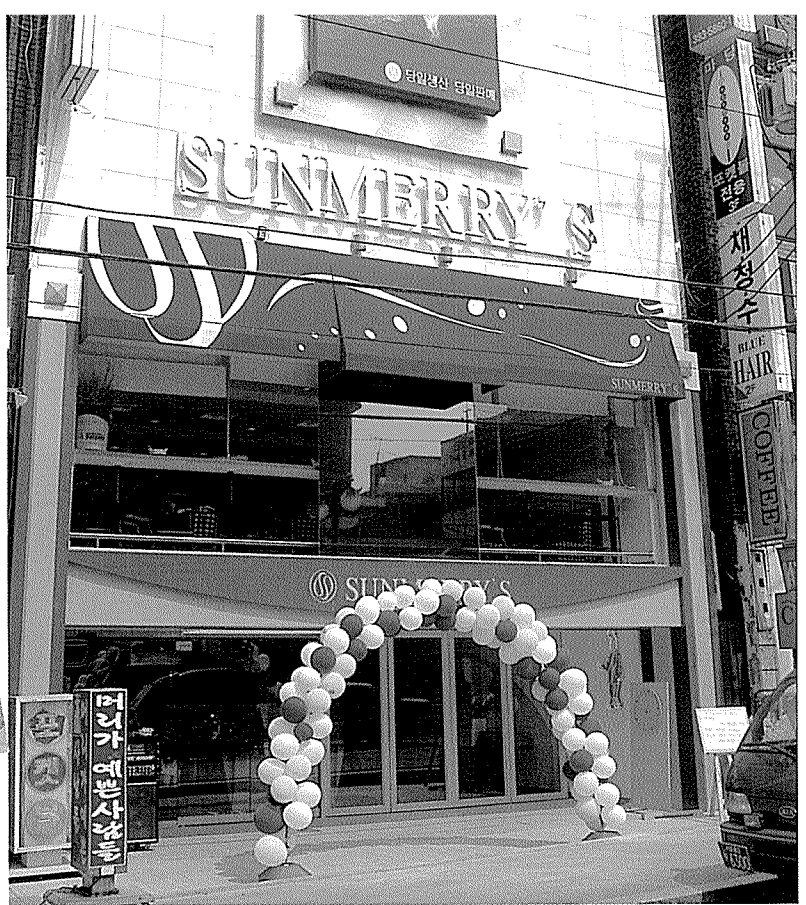
지난 9월 1일 바로방(대표 정종득)이 홍익대학교 내에 구내 다과점을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대학내 학생식당에 완제품이나 냉동생지를 공급한 업체들은 있었지만 독립된 점포 형태로 입점한 곳은 이곳이 처음이다.

바로방은 매년 2,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흥대측에 기탁한다는 조건으로 학교내 체육관 2층에 점포를 입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매장과 공장을 합쳐 총 25평 규모로 70여 가지의 베이커리 제품 가운데 90%를 자체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만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강의가 비는 시간에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베이커리 제품 이외에도 커피나 차, 주스 같은 간단한 음료도 함께 판매하는 한편 매장 내부와 외부에 50여 개의 좌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토스트나 샌드위치, 계란 프라이, 우유 등을 접목시킨 모닝세트를 마련해 아침 식사를 못하고 등교한 학생이나 교직원, 아침 운동을 마친 교수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점포의 박정희 점장은 "학교라는 공간은 언제나 일정한 수요가 있어 비교적 안정된 편"이라며 "특히 이곳은 학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나 교직원 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한 외부 고객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곳은 다른 바로방 매장보다 20% 정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한편 바로방은 흥대점 외에도 다른 대학이나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복합점포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매장 외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처리된 외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 1층 매장 전경. 이곳은 약 70여 가지의 베이커리 제품을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 썬메리, 베이커리아 점포 오픈

이대 앞에 70평 규모 ... 식사 대응 제품 개발에 중점

지난 9월 11일 빙그레 썬메리(대표 신중훈)가 이대 앞에 베이커리아를 표방한 점포를 선보였다.

썬메리 이대점은 베이커리 제품을 비롯해 각종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갖춘 일종의 복합점포다. 1층과 2층을 합쳐 총 70평 규모인 이곳은 이대 앞이라는 상권의 특성상 젊은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베이커리 제품 70여 가지와 각종 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메뉴에서 힌트를 얻어 아이스크림과 파이 혹은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등 몇가지 아이템을 접목 시켜 만든 스페셜 메뉴가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의 스페셜 메뉴는 '하와이안 연정'이나 '숲 속의 다람쥐' 등 제품명이 독특해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썬메리에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점포는 현재 기술직과 판매직을 합쳐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제품을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이곳은 오픈 직후 약 1주일간 할인 쿠폰 증정이나 프랑스 빵 무료 증정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매장 입구에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온 고객들에 한해 하루에 몇 차례씩 '다트게임'을 진행해 젊은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곳은 앞으로 식사 대응 제품 및 메뉴를 위주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썬메리는 올해 안에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베이커리아 형식의 점포 2개를 추가로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

〈글 / 김경옥〉



↑ 각2층 매장 전경. 이곳은 주로 좌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페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공간이다.

→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이곳은 오픈 기념 행사로 다트 게임을 마련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